



# 정의 수호를 위한 과거 기억

## 한국사회의 '진실과 화해'에 대한 고찰

도널드 슈라이버 전 뉴욕 유니온신학대학 총장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004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과거사청산과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 글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도널드 슈라이버 씨의 발제문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오늘 이렇게 '부정적 역사'와 싸웠던 전 세계 여러 사회의 투쟁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회는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과거에 행해진 부당행위가 현재 구성원들의 관계에까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역사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이웃이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그 부당한 고통에 책임져야 하는 관리나 정책가는 이를 잊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 부정적 역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실 추적에 나서 성공을 거둔 나라 중 서독과 남아프리카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유대인 6백만 명 학살 등 나치가 자행한 악행이 지난 30년 동안 독일 전역에 걸쳐 널리 알려지고 인지되었습니다. 서독에서 행정기관이나 시민 모임에서 유대인 희생자를 기리는 공공기념비를 세우지 않은 마을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 기념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나치가 인간 이하로 여긴 유대인 등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 지독한 반

인륜적 범죄를 누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최근 들어 어려운 과거청산을 해낸 나라는 남아프리카입니다. 인종 차별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의 일부로 서로 반대 입장의 지도자들은 1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 TRC)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아이디어는 정치 지도자들의 협상에서 등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지도자들 중 일부는 아파르트헤이트 정부가 행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피해 면죄부를 받길 원했고 다른 일부는 법정 기소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절충안에 합의를 봤고,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하면 사면을 허용했습니다. “진실에 대한 사면(Amnesty for truth)”은 내전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1996년에서 1998년까지, TRC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서 부당하게 학대 받은 약 22,0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사면을 신청한 수백 명과도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TRC는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도 일제 식민시대와 1953년 이후 독재정권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청산하고자 애쓰는 만큼 남아프리카 TRC를 한국 사정에 맞춰 도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디까지나 '한국 사정에 맞는 버전'으로 말입니다. TRC를 주의 깊게 살펴 본 사람이라면 각 국가에서 벌어진 과거사는 그 국가 고유의 문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가에서 시민과 지도자가 해답을 찾아야 할 물음은 매우 비슷합니다.

####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1. 왜 그저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는 없나?' 왜 그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과거를 정리하면 안 됩니까? 과거 정권의 악행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려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그들의 불법부정 행위를 공개하지도 않고 역사교과서에 실지도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 반대할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희생자입니다.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 지배 동안 비밀경찰의 감옥에서 고문관은 희생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 비명 질러봐. 원하는 만큼 온갖 소리를 질러봐. 여기서 네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없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네 놈은 잊혀지게 될 거야."

저는 이 잔인한 말이 피해자들이 받은 두 번째 탄압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탄압뿐 아니라 이제 그들은 그들이 받은 고통에 대중의 기억상실증까지 겪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억상실증에 대해 희생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2. 이러한 탄압에 개입한 자들을 왜 공판에 회부하지 않는가? 이러한 견해는 범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독재정권에 종사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저 명령을 수행한 것뿐이라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재판에 회부하기에는 수년, 수십 년까지 걸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가해자 한 사람 마다 재판을 열기란 비용,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르완다 학살처럼 그 수가 수천에 달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수를 위한 처벌을 바라는 심리가 대중의 기억상실증을 바라는 심리보다 우세해지면 피로 얼룩진 정치적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치적 위험은 기억상실증을 바라는 마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보복이나 대중 기억상실증의 위험은 그 뿌리까지 정치적이라고 남아프리카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쪽이나 심각한 사회 분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들은 보복과 망각 사이의 중도를 절충안으로 삼았습니다. 화해를 위한 진실(truth for reconciliation) 말입니다.

#### 보복과 망각의 중도, 화해를 위한 진실

3. 얼룩진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 사회적, 정치적 화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실위원회의 주창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진실의 칼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인데, 살인자와 외과위가 칼을 사용하는 방법이 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진실위원회의 설계자는 끔찍한 과거로 발생하는 시민들 간의 분열을 해결할 완벽한 대책이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과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불완전한 해결책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고 역시 불안전



한 정의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한다 해도 죽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입은 상처 중에서는 영원히 낫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그래, 잊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은 희생자들에게 새로운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해자들에게 “전에도 아무 벌 안 받았으니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한국에서도 식민통치와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탄압을 기억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진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맞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문화적 배경은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 “과거는 잊자. 저 다리 밑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라고 말하는 일본인들 쪽에 더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지난 세기 한일관계를 잊지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난징학살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을 보면 중국인들도 그들의 역사를 쉽게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 밑을 흐르는 강물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위치가 강을 내려다보는 다리 위에 있는데 실상 우리는 모두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우리와 과거를 함께 미래로 실어 나르는 역사의 흐름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과거를 잠재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를 정말로 과거로 치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과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독일과 남아프리카가 근대 들어 어두운 과거를 꾸준히

히 공개적으로 청산한 좋은 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조국 미국에서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 볼 만한 과거 청산의 예가 있습니다. 2004년 6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원이 상위 정부 기관으로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이 지난 400년 동안 유럽 침입자들의 손에서 겪은 유린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1976년에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 대전 내내 불법으로 부당하게 수용당한 12만 명의 일본인들을 위해 발표한 사과문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공식 진실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에서 수용소 생존자들을 인터뷰했고 빼앗긴 세월, 집, 재산, 가족생활에 끼친 손상에 대해 장문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1990년에 가서는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용소 생존자에게 배상금 형식으로 2만 불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결국 이들 생존자들을 위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배신자로 고발되어 치욕으로 손상된 그들의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사실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 정부에 대한 스파이 활동으로 죄를 지은 일본계 미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많은 젊은이들이 참전해서 전장에서 보여준 용기로 훈장을 받았습니니다.

#### 미래를 중시하는 미국의 과거 청산의 예

4. 부모와 조부모가 행한 범죄로 그 자녀나 손자들까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독일, 남아프리카 그리고 서양인들은 이 질문에 보통 “아니”라고 답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부모가 일본 식민통치와 연관이 있는 일부 공직



도널드 슈라이버 전 유니온신학대학 총장

자들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 생각에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행한 부당한 행위로 그 자식을 비난하는 게 정말 공정한 일입니까? 가족의 얼룩진 과거사를 뒤로 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죄의 세습이라는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최근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면 “현재 한국의 모든 정치정당들은 죄의 세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조상의 죄를 간과하는 게 부당한 일이라면, 이러한 범죄와는 이미 오래 전 연을 끊은 그 후손을 벌주는 일도 부당합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애국심입니다 -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국자라면 지도자가 행하는 불법행위에는 눈 감아야 합니까? 부당함을 있는 사람이 애국자일까요? 아니면 기억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간과한다면 미래가 과거의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나라를 사랑해 미국이 행한 부당함을 간과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거기에는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의 관계에서 행한 부당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노근리 사건 등 전쟁 동안 일어난 비극뿐 아니라 20세기 동안 미국의 이득을 위해 많은 한국인들을 다치게 한 독재정권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 과거사 정리를 위한 몇 가지 원칙

외부인으로 한국 국민에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수 놓을 입장은 아니므로 과거사 처리에 대한 공개 토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을 요약하면서 본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1. 첫 번째로 침묵이 부정을 숨긴다면, 희생자들에게 특별한 목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별다른 영향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그들의 존엄을 세우고 새로운 사회적 위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 관심, 우선적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 과거에 자행된 부당행위는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과거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과거를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말하듯 나쁜 기억은 억눌러도 잠재의식 속에 숨어서 계속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유해한 것은 사회에도 유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복수와 기억상실증의 가운데에는 진실의 공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삶과 경험을 존중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나 과거 정부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난 관심 없소.”라고 이웃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이웃을 모멸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더욱 고립시키는 정치적이고도 도덕적인 불감증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애초에 정부와 말썽을 일으키는 게 아니었어. 그런 일 당해도 할 말 없지.”라며 오히려 희생자를 탓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부당함입니다.

‘위안부 여성’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일본군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잔혹한 처사입니까. 또 오늘날까지 생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의 고통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당행위이자 잘못입니다. 희생자들의 고통을 이미 지나간 과거로 치부해서는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희생자에게는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4.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의 악행에 대한 진실 공개는 일종의 처벌이지만, 가해자와 희생자 모두를 해방시키고 함께 새로운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 나라가 품었던 의문 중 하나는 “부당불법행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밝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익명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가?” 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름, 대리인, 책임 지명이 필요하다. 악행은 이를 행하는 사람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을 사면하겠지만 그들을 익명으로 남겨 둘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지도자들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5. 부당행위를 공개하면 정치적 부당행위가 대중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국민 대중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언제나 대중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부당행위를 저지른 자와 그저 방관만 한 사람 사이에 선을 긋기란 어렵습니다. 남아프리카 TRC에서는 사면 신청을 받았고 그 신청에서 자신의 부당 행위의 성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1996년 12월 케이프타운에서 5명의 흑인 젊은이들이 사면을 신청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담당직원이 묻자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한 적도 없고 저항 그룹에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항 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는데도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대가

는 그들이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죄지은 자와 무고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치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큰 사람과 덜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공유합니다. 단순한 방관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지는 않지만 이들 방관자들도 “무언가 했어야 했다.”고 고백할 기회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한 진실규명

6. 진실을 공개해 국민 화합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화해에 이르는 길은 길고도 먼 여정입니다. 본 발표에서 일본 식민통치기간과 1945년 이후 자행된 억압을 극복해온 한국인들의 투쟁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앞으로의 화합은 남북한 모든 한국인들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서 오랫동안 분단된 국민 통합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 옵서버로 저는 한국 사회 내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체 한반도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의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진실규명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처럼 진실규명에는 인내하고, 복수를 자제하고, 자신과는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처럼 진실규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정의와 평화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그 누구도 부당한 법·정책·지도자로부터 완전히 떼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의 새로운 이웃관계 형성을 꿈꿀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실을, 복수나 독선적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밝히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국민뿐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